Check for update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44 No.3 Serial No.183 2026.9. 1~13
ISSN(print) 2765-1932
https://doi.org/10.7466/JFBL.2026.44.3.1

5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집단 내 또래지위의 관계: 사회적 선호도와 영향력 및 또래지위집단을 중심으로

Self-Reported Playfulness and Peer Status in Preschool Children: Focusing on Social Preference, Social Impact, and Peer Status Groups

고아름[1](Arum Ko) https://orcid.org/0009-0000-7033-2789 이완정[2*](Wan Jeong Lee) https://orcid.org/0000-0002-2000-2279

[1]Division of Child Psychology,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ph.D
[2]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초 록>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집단 내 또래지위의 관계를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및 또래지위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 소재 유아교육기관 3개 기관, 12개 학급에 재원 중인 5세 이상 유아 137명이었고,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일대일 면접으로 측정하였으며 또래지위는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및 또래지위집단을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사회적 선호도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며,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선호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과의 관련성 및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또래지위집단에 따라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기유아는 무시유아와 거부유아보다 놀이성이 높았고, 보통유아는 거부유아보다 놀이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이 집단 내 사회적 위치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놀이성이 또래집단 내에서 수용되고 선호되는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또래지위의 관계를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및 또래지위집단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놀이성과 집단 내 사회적 위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자기보고 놀이성, 또래지위,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또래지위집단

I. 서론

놀이는 유아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무목적 활동으로 유아의 일상에서 분리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다. 근래 유아의 놀이뿐 아니라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성향인 놀이성(playfulness)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놀이성은 새로운 상황을 즐겁고 흥미롭게 해석하고, 놀이적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발성, 유머 감각, 상상성, 즐거움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Barnett, 1991). 전통적으로 놀이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 특성 또는 놀이에 대한 성향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놀이성은 개인이 지닌 내적 특성으로 다양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Proyer & Brauer, 2023).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놀이성이 단순히 놀이 행동의 특성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적응 및 관계 형성과도 관련될 수 있음(이정미, 황성온, 2024; Fink et al., 2020)을 보여준다. 즉,

• 이 논문은 2026년 가정과삶의질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Wan Jeong Lee, 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100 Inha-ro, Michuhol-gu, Incheon 22212, Rep. of Korea. Tel: +82-32-860-8116, E-mail: wanlee@inha.ac.kr
[Received] June 17, 2026; [Revised] July 27, 2026; [Accepted] September 17, 2026

놀이성을 개인의 고정된 특성으로만 보기보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특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van de Weitgraven et al., 2024)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유아라 하더라도 놀이환경, 또래 관계, 교사의 지원 등에 따라 놀이성이 표현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놀이성을 개인의 내적 성향인 동시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표현되는 특성이라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또래 맥락 간 관계에도 연구의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놀이성 연구는 주로 교사, 부모 혹은 관찰자의 평가에 의존하여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해 왔다. 이러한 평정은 유아의 놀이 행동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아가 스스로 인식하는 놀이성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놀이성이 항상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표현되지 않으며, 유아가 자신의 놀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결국 타인이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van de Weitgraven et al., 2024). 결국, 유아의 놀이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관점뿐 아니라 유아 자신의 관점에서 놀이성을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유아 자신의 관점에서 놀이성을 측정하려는 도구가 개발되었으며(Duss et al., 2023; Fink et al., 2020), 국내에서도 고아름과 이완정(2024)이 Duss et al.(2023)의 도구를 번안하여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을 일대일 면접으로 측정하고 이것이 교사가 보고한 유아의 놀이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Duss et al.(2023)의 정리에 따르면, 놀이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기술이 우수하고 또래와의 상호 작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 유능성이 높고 또래 관계에서 보다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최설희, 오재연, 2024)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교사의 놀이 지원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유아일수록 놀이성이 높고, 이는 배움 성향과도 관련(한유진, 신보원, 202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놀이성이 단순히 놀이 행동으로서의 특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특성(Proyer & Brauer, 2023)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놀이 상황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또래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 친사회성, 또래 유능성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놀이성과 집단 내 또래 관계의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놀이성은 외부 환경을 즐거움과 몰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게 만드는 변환장치이며, 개인이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적 필터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놀이 과정에서 사물이나 사람과 관련된 다양한 제약과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유연한 조정과 창의적 탐색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Shen & Crawley, 2025). 실제로 놀이성은 사회적 기술, 친사회성, 또래 유능성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놀이성과 또래 관계의 변인 간 관계를 단순히 일방향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van de Weitgraven et al.(2025)은 5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성숙성과 또래가 평가한 사회적 선호도에 따라 이후 아동이 인식한 자신의 놀이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이 스스로를 놀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가 사회적 경험과 분리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결국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선행 요인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선호되는 경험은 유아가 자신을 보다 놀이적이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반대로 자신을 놀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놀이성과 또래 관계의 변인 관계는 일방향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 상호관련적인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이 집단 내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위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아기 또래 관계는 사회적 적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이며, 또래 집단 내에서 유아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는 유아의 관계적 적응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다루어져 왔다(Coie et al., 1982). 또래지위는 또래 집단 안에서 유아가 얼마나 수용되거나 거부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Cillessen & Rose, 2005)한다. 특히 또래지명법(peer nomination)은 유아가 선호하는 또래와 덜 선호하는 또래를 직접 지명하도록 하여 또래 집단 구성원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또래지위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연결망 분석이나 또래평정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또래지명법도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산출하기 위해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김진아와 손수민(2020)의 또래지위 연구 동향 분석연구에 따르면, 국내 연구에서 또래평

정법 뿐만 아니라 또래지명법이 꾸준히 사용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국외 연구에서도 5세 이상 유아에게 좋아하는 또래와 덜 좋아하는 또래를 지명하도록 하여 또래 수용, 또래 거부, 사회적 선호도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Kucaba & Monks, 2022; Liman, 2024; Zhou et al., 2024), 이를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다(Zhou et al., 2024; van de Weitgraven et al., 2025).

Rubin et al.(2008)은 또래지위를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와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뉘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선호도는 또래로부터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를 반영하는 지표(Coie et al., 1982)로, 또래수용 및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은 또래들이 한 유아를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가를 의미하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아는 또래 집단 내에서 눈에 띄고 주목받는 존재일 수 있으나, 반드시 또래들에게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즉, 또래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또래에게 얼마나 선호되는지만 살펴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동일한 또래 집단 내에서도 어떤 유아는 또래들에게 호감을 얻는 반면, 어떤 유아는 또래들로부터 강한 관심과 주목을 받지만 반드시 선호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Prino et al.(2023)은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사회적 영향력은 집단 내 가시성을 나타내지만 이것이 반드시 또래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Farina와 Belacchi(2022)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시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또래에 대한 괴롭힘 참여역할을 서로 다르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지표가 또래지위의 하위 지표로 함께 사용되지만,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사회적 선호도는 또래수용, 우정, 친사회적 행동 등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사회적 영향력은 집단 내 가시성, 존재감,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놀이성과 또래 관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또래에게 선호되는 특성을 보이는지, 혹은 집단 내에서 주목받는 특성을 보이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특히 놀이성은 자발성, 유머 감각, 상상력,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선호도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놀이성과 또래지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은 또래 집단 내에서 유아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를 연속적인 점수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유아가 또래들에게 얼마나 선호되거나 주목받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개별 유아가 집단 내에서 어떠한 사회적 유형에 속하는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Cillessen & Rose, 2005). 예를 들어 동일한 사회적 선호도 점수를 가진 유아라 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 수준에 따라 또래 집단 내 위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oie et al.(1982)은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결합하여 인기아(popular), 거부아(rejected), 무시아(neglected), 양면아(controversial), 평균아 혹은 보통아(average)의 또래지위집단을 제안한 바 있다. 또래지위집단은 단순히 또래에게 얼마나 선호되거나 가시성을 가지는가를 넘어 집단 내에서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또래지위집단 유형은 서로 다른 사회적 특성을 지닌 유아들을 구분해 준다는 장점을 가진다(Rubin et al., 2008). 예를 들어 인기아는 높은 사회적 선호도를 보이는 반면 거부아는 낮은 사회적 선호도를 보이며, 양면아는 높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는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또래지위 유형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김선희, 김희태, 2017; Zhou et al., 2024)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외에 또래지위집단의 구분을 활용하여 놀이과정에서의 상호작용 특성(박춘영, 최연철, 2025)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집단 내 또래지위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신의 특성을 보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또래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를 형성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연구들(고아름, 이완정, 2024; Duss et al., 2023)은 3세 유아도 적절한 방식이 제공되면 자신의 놀이성에 대해 응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Measelle et al.(2005)은 자기보고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자기 보고가 모든 연령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분화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아름과 이완정의 연구(2024)에서 유아가 인식한 자신의 놀이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4,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놀이성 전체와 다섯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의 자기보고 놀이성의 수준과 구조가 유아기 후반으로 갈수록 보다 안정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래 Fink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보고 놀이성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Fink et al.(2020)의 종단표본에서도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이 5~6세에 걸쳐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지명법 역시 유아가 특정 또래를 지속적으로 선호하거나 회피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보다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 내 또래지위 측정의 측면에서도 5세 이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Kucaba와 Monks(2022)는 5~7세 아동에게서 상호적 우정이 나타나며, 이러한 초기 우정이 본격적인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유아의 또래지위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진아와 손수민(2020)에 따르면, 3세나 4세보다는 5세 단일연령을 대상으로 또래지위를 측정한 연구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진행된 해외 또래관계 연구들도 5~6세(Liman, 2024) 또는 5~7세 유아(Kucaba & Monks, 2022)를 대상으로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선호도, 또래수용, 또래거부 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5세 이상 유아는 자기보고 놀이성과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및 또래지위집단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발달적・방법론적으로 적절한 집단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5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자기보고 놀이성과 집단 내 또래지위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종합하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는 유아교실에서 놀이성은 개인적 성향에 머무르기보다 또래와의 놀이과정 속에서 발휘되며,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집단 내 또래지위의 관계를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및 또래지위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사회적 선호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사회적 영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또래지위집단에 따라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취학전 유아기관에 재원 중인 5세 이상 유아 1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중심으로 모집하였으며, 참여 기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3개 학급), 직장 어린이집 1개소(3개 학급), 민간 어린이집 1개소(6개 학급)로 구성되었다. 학급당 유아 수는 13명에서 18명 범위였다. 성별 분포는 남아 58명(42.3%), 여아 79명(57.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집단 내 또래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였다. 또래지명은 학급의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급 구성원 전원이 지명에 참여하였으며, Coie et al.(1982)의 기준에 따라 또래지위집단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인기유아는 19명(13.9%), 보통유아는 69명(50.3%), 무시유아는 12명(8.8%), 거부유아는 18명(13.1%), 양면형유아는 7명(5.1%), 미분류유아는 12명(8.8%)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또래지위 산출 및 분류방법은 연구도구 절에 제시하였으며, 또래지위집단별 사례수 및 비율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아름과 이완정(2024)의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Duss et

표 1. 또래지위집단별 사례수 및 비율 (N = 137)

집단	n	%
인기유아	19	13.9
보통유아	69	50.3
무시유아	12	8.8
거부유아	18	13.1
양면형유아	7	5.1
미분류유아	12	8.8
계	137	100

al.(2023)이 개발한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in self-report; CPS)'를 번안한 것으로, Duss et al.(2023)은 원래 교사가 유아의 놀이성을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Barnett(1991)의 도구를 유아에게 일대일 면접을 통한 질문으로 구성한 후 타당화시켰다. 이 도구는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신체적 자발성, 유머 감각, 즐거움의 표현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3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를 먼저 시작하고 협력하려는 정도를 살펴보며 문항의 예로 "너는 놀이할 때 친구들에게 함께 놀자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가 있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의 상상적 측면과 다양한 역할로 전환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며 "너는 놀이할 때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니?"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한다.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 중 신체 움직임과 협응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너는 놀이할 때 점프와 같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니?"가 있다. 유머 감각은 익살을 부리고 또래와 가볍게 장난치며 농담을 즐기는 정도를 뜻하며 "너는 놀이할 때 웃긴 표정을 짓거나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니?"문항을 포함한다.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 중 기쁨과 열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 "너는 놀이할 때 미소 짓거나, 큰 소리로 웃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니?"가 있다.

각 문항은 유아가 문항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를 좋아하니?"의 표현으로 묻는다. 응답은 Marsh와 Holmes (1990)의 다면적 자아개념 측정 방식과 같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유아는 먼저 '좋아해요' 또는 '좋아하지 않아요'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좋아해요'를 선택한 경우에는 초록색 큰 원과 작은 원을 통해 '많이 좋아하는지' 또는 '조금 좋아하는지'를 응답하고, '좋아하지 않아요'를 선택한 경우에는 파란색 큰 원과 작은 원을 통해 그 정도를 응답하였다. 채점은 '많이 좋아함' 4점에서 '많이 좋아하지 않음' 1점까지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신의 놀이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로 나타났다.

2) 또래지위

또래지위는 Coie et al.(1982)의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래지명법은 또래집단 구성원의 관점에서 유아가 또래에게 얼마나 선호되거나 주목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산출하여 또래지위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아는 같은 반 친구 중 '가장 좋아하는 친구 세 명'과 '가장 싫어하는 친구 세 명'을 각각 지명하였다. 이후 각 유아가 받은 좋아요 지명 수와 싫어요 지명 수를 반별로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된 좋아요 점수에서 표준화된 싫어요 점수를 뺀 값을 사회적 선호도, 표준화된 좋아요 점수와 싫어요 점수를 더한 값을 사회적 영향력으로 산출하였다.

산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Coie et al.(1982)의 분류 기준에 따라 유아를 또래지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인기유아는 사회적 선호도가 표준편차 +1.0 이상이면서 좋아요 점수가 평균 초과, 싫어요 점수가 평균 미만인 유아로 분류하였다. 거부유아는 사회적 선호도가 표준편차 -1.0 이하이면서 싫어요 점수가 평균 초과, 좋아요 점수가 평균 미만인 유아로 분류하였다. 무시유아는 사회적 영향력이 표준편차 -1.0 이하이면서 좋아요 지명을 전혀 받지 못한 유아로 분류하였다. 양면형유아는 사회적 영향력이 표준편차 +1.0 이상이면서 좋아요 점수와 싫어요 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인 유아로 분류하였다. 보통유아는 사회적 선호도가 표준편차 -.5 이상 +.5 이하인 유아로 분류하였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유아는 미분류유아로 처리하였다(분류 결과는 앞의 <표 1> 참조).

3. 연구절차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는 참여 기관의 기관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자료의 익명 처리 및 비밀 보장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면접 시작 전에는 유아에게 연구의 내용과 유아의 응답이 비밀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유아가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면접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표집된 취학 전 유아기관을 방문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유아를 일대일로 면접하였다. 자료수집은 놀이성 검사와 또래지명 검사를 서로 다른 날에 실시하여 응답이 서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였다. 먼저 유아가 인식하는 자신의 놀이성 측정 문항을 한 문항씩 물은 후, 유아에게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응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또래지명 검사는 놀이성 검사와 다른 날에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같은 반 친구들의 사진이 나열된 것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 세 명과 가장 싫어하는 친구 세 명을 각각 지명하도록 하였고, 유아의 응답은 연구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또래지명 자료가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면접은 다른 유아가 응답 내용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자와 유아 간

일대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시작 전 유아에게 누구를 지명하였는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였다. 유아의 응답은 유아별 고유번호로 부호화하여 처리하였고 담임교사와 또래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면접을 마치기 전에는 유아가 응답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힘든 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유아가 편안하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면접을 마무리하고 학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또래지위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통해 각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유아가 3개 기관의 12개 학급에 소속된 위계적 구조를 가지므로 학급 수준의 군집효과를 검토하였다. 학급을 임의효과로 투입한 무조건모형에서 유아 자기보고 놀이성의 급내상관계수(ICC)는 .35로 나타나 학급 수준 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은 반별로 표준화한 점수로서 학급 간 평균 차이가 설계상 제거되어 있으며, 실제로 학급 임의절편을 포함한 혼합모형에서 두 변인의 학급 절편분산은 0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표집된 학급 수는 다층모형의 안정적인 추정에 필요한 상위수준 표본 수 기준(Maas & Hox, 2005)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공분산분석을 본분석으로 하되, 학급 임의절편을 포함한 선형혼합모형을 민감도 분석으로 병행하여 주요 결과가 학급 군집을 고려한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 간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으로 살펴본 후,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놀이성이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성별을 통제변수로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 놀이성 총점을 추가 투입하였다.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또래지위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미분류유아를 제외한 125명을 대상으로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표본 크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Levene의 검정으로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으며,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robust 표준오차(HC3)를 적용한 모수 추정값을 함께 산출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경우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또래지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전체 평균은 3.59(SD = .53)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신체적 자발성(M = 3.84, SD = .52)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자발성(M = 3.71, SD = .52), 즐거움의 표현(M = 3.54, SD = .73), 유머 감각(M = 3.47, SD = .73), 인지적 자발성(M = 3.44, SD = .93) 순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또래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선호도(M = .03, SD = .99)와 사회적 영향력(M = -.01, SD = 1.01)은 표준화 점수로 평균이 0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으며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절대값 2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전반적으로 상위 점수에 응답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신체적 자발성은 왜도(-3.72)와 첨도(14.84)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응답이 4점 만점의 상위 점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특성상 뛰어노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활동적인 놀이 등 신체적 자발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 보인다. 실제로 Duss et al.(2023)의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모든 문항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robust 추정 방법이 적용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발성이 포함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분포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표본 크기(N = 137)를 감안할 때 상관 및 회귀분석의 모수 추정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또래지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놀이성 총점은 사회적 선호도(r = .35,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자발성(r = .24, p < .01), 인지적 자발성(r = .27, p < .01), 유머 감각(r = .32, p < .001), 즐거움의 표현(r = .32, p < .0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신체적 자발성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영향력은 사회적 자발성(r = .18, p < .05) 및 인지적 자발성(r = .18, p <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137)

	변인	1	2	3	4	5	6	7	8
1	사회적 자발성	1							
2	인지적 자발성	.80***	1						
3	신체적 자발성	.20*	.33***	1					
4	유머 감각	.38***	.37***	.38***	1				
5	즐거움의 표현	.55***	.39***	.32***	.91***	1			
6	놀이성 총점	.77***	.74***	.51***	.85***	.88***	1		
7	사회적 선호도	.24**	.27**	.12	.32***	.32***	.35***	1	
8	사회적 영향력	.18*	.18*	.08	.09	.09	.15	.27**	1
	평균 (표준편차)	3.71 (.52)	3.44 (.93)	3.84 (.52)	3.47 (.73)	3.54 (.73)	3.59 (.53)	.03 (.99)	-.01 (1.01)
	최솟값 최댓값	1.33 4.00	1.00 4.00	1.00 4.00	1.00 4.00	1.00 4.00	1.77 4.00	-2.58 2.64	-2.43 2.19
	왜도	-2.55	-1.37	-3.72	-1.44	-1.47	-1.56	.16	.24
	첨도	8.12	.49	14.84	1.10	1.06	1.90	.70	-.50

*p < .05, **p < .01, ***p < .001

.05)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놀이성 총점(r = .15, ns) 및 신체적 자발성, 유머 감각, 즐거움의 표현과 같은 나머지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r = .27, p < .01)이 나타났다.

2.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이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과 같이 사회적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성별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놀이성 총점을 추가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R^2= .12, F = 9.48, p < .001), 놀이성 총점(β = .36, p < .001)은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선호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력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성별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놀이성 총점을 추가 투입하였으나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았으며(R^2 = .03, F = 1.74, ns), 놀이성 총점 역시 사회적 영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급 임의절편을 포함한 선형혼합모형에서도 놀이성 총점은 사회적 선호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 = .67, p < .001)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아 학급 군집을 고려한 후에도 위계적 회귀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3. 또래지위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차이

또래지위집단에 따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차이를 살

표 3. 놀이성과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및 선형혼합모형 분석 (N = 137)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모형 1		모형 2		혼합모형	모형 1		모형 2		혼합모형
	B	β	B	β	B	B	β	B	β	B
상수	.05		-2.45		-2.45	.08		-.96		-.96
성별	-.03	-.01	.12	.06	.12	-.14	-.07	-.08	-.04	-.08
놀이성 총점			.67	.36***	.67***			.28	.15	.28
R^2(ΔR^2)	.00		.12(.12***)		-	.01		.03(.02)		-
F	.02		9.48***		-	.66		1.74		-

***p < .001

펴보기 위해 또래지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 미분류유아 12명을 제외한 125명을 대상으로 성별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 간 표본 크기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에 앞서 Levene의 검정으로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robust 표준오차(HC3)를 적용한 모수 추정값을 함께 산출하였으며 주요 집단 간 차이는 robust 추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 = 4.21, p < .05), 또래지위집단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 = 6.24, p < .001). 성별에 따른 추정 평균을 확인한 결과, 여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평균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 5>에는 성별을 통제한 후의 또래지위집단별 놀이성 추정 평균을 제시하였다. 집단별 추정 평균은 인기유아(M = 3.87), 양면형유아(M = 3.82), 보통유아(M = 3.62), 거부유아(M = 3.23), 무시유아(M = 3.19) 순으로 나타났다.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인기유아는 무시유아 및 거부유아보다 놀이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통유아도 거부유아보다 놀이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양면형유아의 놀이성 추정 평균은 보통유아보다 높았으나 사례수가 7명으로 적어 집단 내 변산을 고려하는 사후검정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학급 임의절편을 포함한 선형혼합모형에서도 또래지위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유지되어(F = 8.15, p < .001), 집단 간 차이가 학급 군집을 고려한 후에도 확인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는 유아교실에서 유아가 보고하는 자신의 놀이성이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와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5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으로 자기보고 놀이성을 측정하였으며, 또래지명법을 통해 사회적 선호도와 영향력 점수를 산출하고 또래지위집단 유형을 분류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평균은 3.5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uss et al.(2023)의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평균이 3.20으로 나온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이는 Duss et al.(2023)의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이 3-5세인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Duss et al.(2023)의 도구를 사용한 고아름과 이완정(2024)의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 보고 놀이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놀이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이라 보인다.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하위요인 중에서는 신체적 자발성이 가장 높고 인지적 자발성이 가장 낮았다. 특히 신체적 자발성은 응답이 상위 점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Duss et al.(2023)의 연구에서도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에게 놀이란 신체적 움직임이나 뛰어다니기, 직접 활동하기로 인식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또래지위집단은 보통유아가 69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인기유아 19명(13.9%), 거부유아

표 4. 또래지위집단별 놀이성의 공분산분석 결과 (N = 125)

	SS	*df*	MS	*F*	η^2
성별	1.03	1	1.03	4.21*	.03
또래지위집단	6.12	4	1.53	6.24***	.17
오차	29.17	119	.25		

*p < .05, ***p < .001

표 5. 또래지위집단별 놀이성 추정 평균 및 사후검정 결과 (N = 125)

집단	*n*	*M*	SE	사후검정
인기유아(A)	19	3.87	.11	A > C, D B > D
보통유아(B)	69	3.62	.06	
무시유아(C)	12	3.19	.14	
거부유아(D)	18	3.23	.12	
양면형유아(E)	7	3.82	.19	

18명(13.1%), 무시유아와 미분류유아가 각각 12명(8.8%), 양면형유아 7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van der Wilt et al.(2018)의 연구에서 보통유아가 292명(51.2%)으로 가장 많고, 인기유아 73명(12.8%), 거부유아 78명(13.7%), 무시유아 77명(13.5%), 양면형유아 50명(8.8%)으로 나타난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또한 Rytioja et al.(2019)의 연구에서도 평균아가 135명으로 가장 많고, 양면형아가 44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 것과 같은 방향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집단 내 또래지위와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먼저,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총점은 사회적 선호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놀이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집단 내에서 또래에게 더 많이 수용되고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 및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련을 보인다고 보고한 Duss et al.(2023)의 결과, 자기보고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한 Fink et al.(2020)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놀이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최설희와 오재연(2024)의 결과를 지지하며, 유아의 놀이성이 친사회적 기술 및 학교준비도와 관련된다고 밝힌 Fung과 Chung(2023)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에 비해,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총점은 사회적 영향력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에서만 사회적 영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놀이성이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정도와는 관련되지만, 또래 집단 내에서 많이 언급되거나 주목받는 정도와는 동일하게 관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지위가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서로 다른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한 Coie et al.(1982)의 논의와 부합한다. 또한 사회적 선호도는 또래에게 수용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정도인 반면, 사회적 영향력은 또래 집단 안에서 알려지거나 가시적인 정도를 의미하며 반드시 긍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Prino et al.(2023)의 논의와도 일치한다. Farina와 Belacchi(2022)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전이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괴롭힘 참여역할을 서로 다르게 예측한다고 보고한 결과 역시 본 연구에서 두 변인이 놀이성과 서로 다른 관련을 보인 결과를 뒷받침한다.

셋째,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사회적 선호도 및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놀이성 총점은 사회적 선호도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상관분석에서 확인된 변인 간 관련성을 넘어,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유아가 자신의 놀이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또래로부터 더 많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기술을 더 잘 나타내고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한 Duss et al.(2023), Fung과 Chung(2023)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van de Weitgraven et al.(2025)의 연구가 또래의 사회적 선호도 경험이 이후 자기보고 놀이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통해 유아가 인식하는 자신의 놀이성이 현재의 또래 선호도와 유의하게 관련되고 이를 설명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한다.

반면,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 총점은 집단 내 또래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또래집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주목받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또래지위의 구성요소이지만 서로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 Cillessen과 Rose(2005), Coie et al.(1982), Prino et al.(2023)의 논의를 지지한다. 특히 Prino et al.(2023)이 사회적 영향력을 집단 내 가시성으로 설명하면서 높은 사회적 영향력이 긍정적 이유뿐 아니라 부정적 또는 중립적 이유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본 점은, 본 연구에서 놀이성이 사회적 선호도는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적 영향력은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또래지위집단에 따라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또래지위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집단별 추정 평균은 인기유아, 양면형유아, 보통유아, 거부유아, 무시유아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인기유아는 무시유아 및 거부유아보다 놀이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보통유아도 거부유아보다 놀이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지위집단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행동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Rytioja et al.(2019)은 또래지위집단에 따라 행동·정서적 강점과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나며, 인기아가 거부아보다 자신의 행동·정서적 강점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기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이 거부유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박춘영과 최연철(2025)은 만 5세 인기유아를 참여 관찰한 결

과, 인기유아가 또래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긍정적이며 배려적인 행동 특성을 보였으며, 놀이를 촉진하고 더 흥미롭게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인기유아가 다른 집단보다 자신을 더 놀이적인 존재로 인식한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에 비해, 거부유아와 무시유아는 인기유아보다 자기보고 놀이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van der Wilt et al.(2018)이 4~7세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지위집단별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분석한 결과, 거부아와 무시아가 인기아, 양면형아, 평균아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즉 또래집단에서 거부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유아는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자신이 놀이적으로 행동하고 놀이를 즐기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자료이므로, 이러한 차이가 또래관계 경험의 결과인지 또는 낮은 자기보고 놀이성이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관련되는지는 후속연구에서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은 사회적 선호도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며, 성별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회적 선호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지위집단에 따라서도 자기보고 놀이성에 차이가 나타나 인기유아와 보통유아가 거부유아보다 높은 놀이성을 보였다. 반면 놀이성은 사회적 영향력과는 제한적인 관련만을 보여, 또래에게 선호되는 특성과 집단 내에서 주목받는 특성이 동일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이 단순히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에 머무르지 않고 또래집단 내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놀이성이 사회적 적응,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유능성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이정미, 황성온, 2024; 최설희, 오재연, 2024; Duss et al., 2023; Fink et al., 2020; Fung & Chung, 2023)의 주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이 실제 또래집단 내 사회적 위치와도 관련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특히 본 연구는 놀이성과 또래지위의 관계를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및 또래지위집단이라는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놀이성이 또래에게 수용되는 특성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놀이성이 낮게 나타나는 유아를 단순히 놀이 참여 수준의 문제로 보기보다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 함께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 수집된 횡단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이 사회적 선호도와 관련되고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경험이 유아의 놀이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놀이성과 또래지위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보고 놀이성과 또래지명법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아의 놀이성은 자기보고, 교사평정, 부모평정, 관찰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또래관계 역시 또래지명법 외에 사회연결망 분석이나 또래평정법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놀이성과 또래 관계 간의 관련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가 인식하는 자신의 놀이성을 일대일 면접으로 측정하고, 이를 또래지명법을 통해 산출한 집단 내 또래지위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자기보고 놀이성이 사회적 선호도, 사회적 영향력 및 또래지위집단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놀이성이 또래관계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유아의 놀이성은 집단 내에서 단순히 눈에 띄거나 많이 언급되는 특성이라기보다, 또래에게 수용되고 긍정적으로 관계 맺는 특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놀이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때, 개별 유아의 놀이 성향뿐 아니라 또래 관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고아름, 이완정(2024). 유아가 인식하는 자신의 놀이성: 교사의 평가 및 유아 실행 기능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31*(3), 27-41. https://doi.org/10.15284/kjhd.2024.31.3.27

김선희, 김희태(2017). 혼합연령 유아학급의 또래지위에 따른 또래관계 특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4), 335-359. http://dx.doi.org/10.22154/JCLE.18.4.14

김진아, 손수민(2020). 유아 또래지위 관련 연구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9*(4), 83-109. https://doi.org/10.30761/ecoece.2020.19.4.83

박춘영, 최연철(2025). 또래관계에서 인기유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1), 499-519.

https://doi.org/10.22251/jlcci.2025.25.11.499

이정미, 황성온(2024). 영유아 놀이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2009-2023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1*(2), 199-228. https://doi.org/10.55450/hilas.2024.11.2.199

최설희, 오재연(2024). 유아의 놀이성과 창의적 인성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1), 829-849.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21.829

한유진, 신보원(2024). 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이 만 5세반 유아의 배움 성향에 미치는 영향: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45*, 97-117. https://doi.org/10.37918/kce.2024.3.145.97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1), 51-74.

Cillessen, A. H. N., & Rose, A. J. (2005). Understanding popularity in the peer syst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102-105.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5.00343.x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https://doi.org/10.1037/0012-1649.18.4.557

Duss, I., Rüdisüli, C., Wustmann Seiler, C., & Lannen, P. (2023). Playfulness from children's perspectiv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playfulness scale as a self-report instrument for children from 3 years of age. *Frontiers in Psychology, 14,* 1287274. https://doi.org/10.3389/fpsyg.2023.1287274

Farina, E., & Belacchi, C. (2022). Social status and emotional competence in bullying: A longitudinal study of the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primary school. *Frontiers in Psychology, 13,* 817245. https://doi.org/10.3389/fpsyg.2022.817245

Fink, E., Mareva, S., & Gibson, J. L. (2020). Dispositional playfulness in young children: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new child self-reported playfulness scale and associations with social behaviour.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9*(4), e2181. https://doi.org/10.1002/icd.2181

Fung, W. K., & Chung, K. K. H. (2023). Playfulness as the antecedent of kindergarten children's prosocial skills and school readiness.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31*(5), 797-810. https://doi.org/10.1080/1350293X.2023.2200018

Kucaba, K., & Monks, C. P. (2022).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in early childhood: The association with peer victimization. *Aggressive Behavior, 48*(4), 431-442. https://doi.org/10.1002/ab.22029

Liman, B. (2024). Self-regulation skills and peer preferences in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al Research, 11*(1), 131-142. https://doi.org/10.52380/ijcer.2024.11.1.372

Maas, C. J. M., & Hox, J. J. (2005). Sufficient sample sizes for multilevel modeling. *Methodology*, *1*(3), 86-92. https://doi.org/10.1027/1614-2241.1.3.86

Marsh, H. W., & Holmes, I. W. M. (1990). Multidimensional self-concepts: Construct validation of responses by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7*(1), 89-117. https://doi.org/10.2307/1163070

Measelle, J. R., John, O. P., Ablow, J. C., Cowan, P. A., & Cowan, C. P. (2005). Can children provide coherent, stable, and valid self-reports on the Big Five dimensions? A longitudinal study from ages 5 to 7.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1), 90-106. https://doi.org/10.1037/0022-3514.89.1.90

Prino, L. E., Longobardi, C., Fabris, M. A., & Settanni, M. (2023). Attachment behaviors toward teachers and social preference in preschool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4*(4), 806-822. https://doi.org/10.1080/10409289.2022.2085980

Proyer, R. T., & Brauer, K. (2023). Assessment of playfulness: Current challenges and overview. In W. Ruch, A. B. Bakker, L. Tay, & F. Gander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assessment*(pp. 145-161). Germany: Hogrefe. https://doi.org/10.1027/00619-000

Rubin, K. H., Bukowski, W. M., Parker, J. G., & Bowker, J. C. (200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71–645). NJ: Wiley.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42408974_Peer_Interactions_Relationships_and_Groups

Rytioja, M., Lappalainen, K., & Savolainen, H. (2019). Behavioural and emotional strengths of sociometrically popular, rejected, controversial, neglected, and average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Special Needs Education, 34*(5), 557–571. https://doi.org/10.1080/08856257.2018.1560607

Shen, X., & Crawley, Z. (2025). How does playfulness (re)frame the world? Evidence for sel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redirecting in times of adversity. *Frontiers in Psychology, 15,* 1462980. https://doi.org/10.3389/fpsyg.2024.1462980

van de Weitgraven, R. L., Jansen, B. R. J., Dekkers, T. J., & Fink, E. (2025). A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maturity, social preference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layfulness. *Scientific Reports, 15,* 23537. https://doi.org/10.1038/s41598-025-09536-4

van de Weitgraven, R. L., Jansen, B. R. J., Spaargaren, E., Popma, A., Oostrom, K. J., & Dekkers, T. J. (202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utch translation of the child self-report playfulness questionnaire. *Scientific Reports, 14,* 26843. https://doi.org/10.1038/s41598-024-78236-2

van der Wilt, F., van der Veen, C., van Kruistum, C., & van Oers, B. (2018).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or average: Do young children of different sociometric groups differ in their level of oral communicative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27*(4), 793–807. https://doi.org/10.1111/sode.12316

Zhou, Y., Deng, X., Wang, S., & Shi, L. (2024). Theory of Mind and physical bullying in pre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nd gender differences. *Psicologia: Reflexão e Crítica, 37*, 29. https://doi.org/10.1186/s41155-024-00313-2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elf-reported playfulness and peer status, focusing on social preference, social impact, and peer status groups. Participants were 137 children aged five years and older attending th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12 classroom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hildren's self-reported playfulness was assess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peer status was measured using peer nomination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nd ANCOVA. The results showed that self-reported playfuln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preference and significantly explained social preference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However, its association with and explanatory power for social impact were not significant.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reported playfulness were found across peer status groups. Popular children reported higher playfulness than neglected and rejected children, and average-status children reported higher playfulness than rejected childr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young children's self-reported playfulness is related to their social position within the peer group.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and social position in peer groups at the levels of social preference, social impact, and peer status groups.

▲Keywords : self-reported playfulness, peer status, social preference, social impact, peer status groups